

Theme Analysis

2008년 10월 28일

Analyst

이창호

02) 2009-7087

chlee@leading.co.kr

한국은행 금리인하

「 기준금리: 5.0% → 4.25%(75bp 인하)
은행채 특수채 등을 환매조건부조건(RP) 방식으로 매수 」

금리인하 배경

- ◆ 외분계 자본 유출
- ◆ 환율과 주가 급등락
- ◆ 부분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남
- ◆ 글로벌 증시의 주가 급락
- ◆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, 국내 경기둔화 우려(3분기 경제성장률은 3년만에 3%대로 하락, 내년에는 2%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)
- ◆ 연내 25조원 규모의 은행채 만기를 앞두고 있음
- ◆ 유동성 공급 채널 다양화와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의 필요성
- ◆ 가계나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많은 상황

금리인하 효과

- ◆ 금리 대폭 인하와 시중 유동성 공급은 단기적으로 증시의 급락을 막는 효과
- ◆ 부동산시장 붕괴 방지
- ◆ 채권시장 불안심리 해소와 매수기반 확충이 기대
- ◆ 중소 무역업계의 자금 사정 해소

➔ 한국은행은 10월에만 100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.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이돼, 국내 경기둔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내부적인 조치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심리가 확산되어 여전히 주식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. 금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해 원화가치는 한층 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.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방어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 통화가치 우위에서 오는 장점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.